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신선옥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hinso@kli.re.kr)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2018~2022년) 주된 일자리와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 실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봄.

- 전체 취업자 중 2% 내외의 근로자가 복수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고연령, 고졸이거나 가구주인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은 농림어업, 직종은 생산직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및 전일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난 5년간 공공서비스업, 사무직, 무급가족종사자 및 시간제 비중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64.6%)의 거의 절반 수준이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49.2%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76.3%)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186만 1천 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273만 7천 원)의 68%에 불과하였으나, 모든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총소득은 294만 7천 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30.1시간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40.2시간)에 비해 10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모든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은 54.6시간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14시간이나 더 긴 양상을 보임.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종사상 지위는 두 일자리 모두 자영업자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두 일자리의 산업이 다른 경우는 2022년 기준 64.6%이고, 직종이 다른 경우도 60.6%로 나타남. 두 번째 일자리는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과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 분석 결과를 통해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특성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 배경 및 목적

-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시간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증가 현상으로 볼 때 근로시간 및 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과거 주된 일자리 하나에만 집중하던 때와 달리 여러 일자리를 겸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2018~2022년) 주된 일자리와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 실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봄.

2. 분석자료 및 대상

-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를 비롯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임금, 근로시간, 업종, 직종, 종사상지위 등)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함.
 - 본고에서 복수일자리는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일자리는 ‘한 개인이 한 시점에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함. 복수일자리 종사자가 여러 개의 일자리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라고 판단한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라고 하며, 주된 일자리가 아닌 부가적인 일자리를 모두 ‘두 번째 일자리’라고 정의함. 매해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들이 존재하는데, 최대 4개의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도 있음.
-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근 5년간 자료 중 대규모 표본인 18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1>에서 보듯이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취업자 중 2% 내외의 근로자가 복수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비중

(단위: 명, %)

	취업자 수	단독일자리		복수일자리				비중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2개	3개	4개	
2018	13,273	13,027	98.1	246	237	9	-	1.9
2019	12,688	12,426	97.9	262	253	8	1	2.1
2020	12,298	12,057	98.0	241	235	6	-	2.0
2021	12,438	12,186	98.0	252	246	6	-	2.0
2022	12,743	12,489	98.0	254	249	5	-	2.0

주: 1) 복수일자리는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임.

2) 18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복수일자리 종사자는 2018년 1.9%에서 2019년 2.1%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이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된 일자리의 특성

• [그림 1]의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연령, 고졸이거나 가구주인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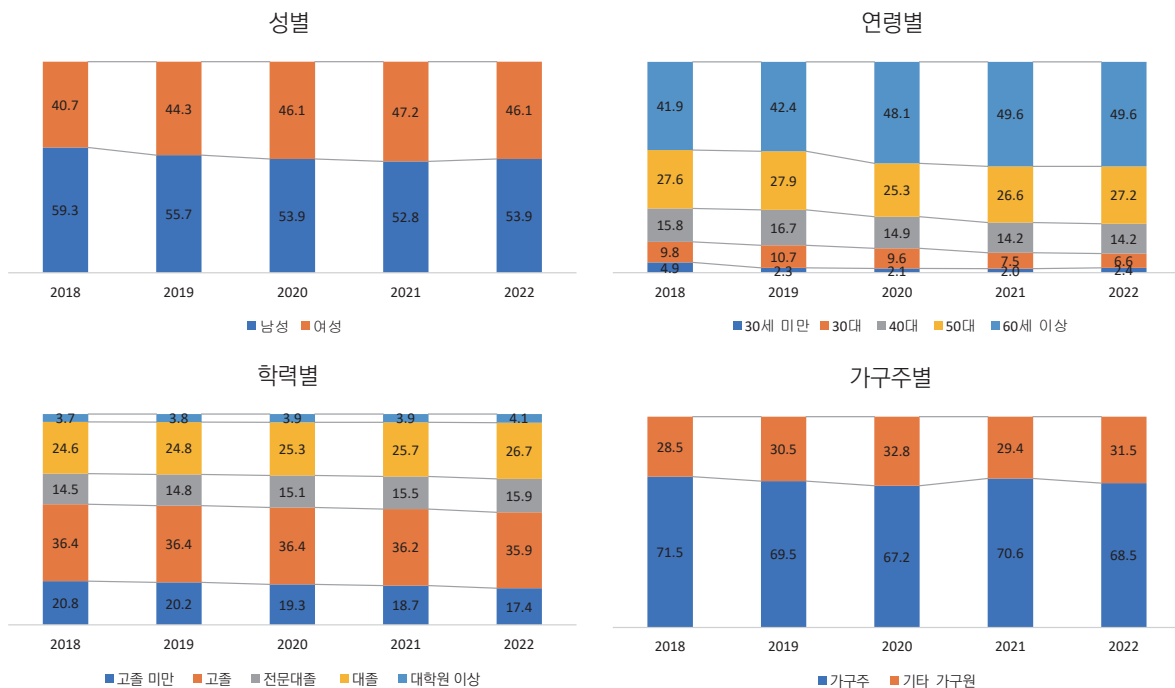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2018년 40.7%에서 2022년 46.1%로 증가함.
- 연령별로는 60세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이 2018년 41.9%에서 2022년 49.6%로 증가한 반면, 30대(9.8% → 6.6%)와 30세 미만(4.9% → 2.4%)은 감소함.
-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대졸자의 비중이 2018년 24.6%에서 2022년 26.7%로 증가한 반면, 고졸 미만(20.8% → 17.4%)은 감소함.
- 복수일자리 종사자 중에서 가구주 외 가구원의 비중이 2018년 28.5%에서 2022년 31.5%로 증가함에 따라 가구주의 비중(71.5% → 68.5%)은 감소함.

• [그림 2]의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은 농림어업, 직종은 생산직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및 전일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난 5년간 공공서비스업(17.1% → 20.9%), 사무직(4.9% → 7.5%), 무급가족종사자(8.1% → 9.8%) 및 시간제(35.5% → 41.0%) 비중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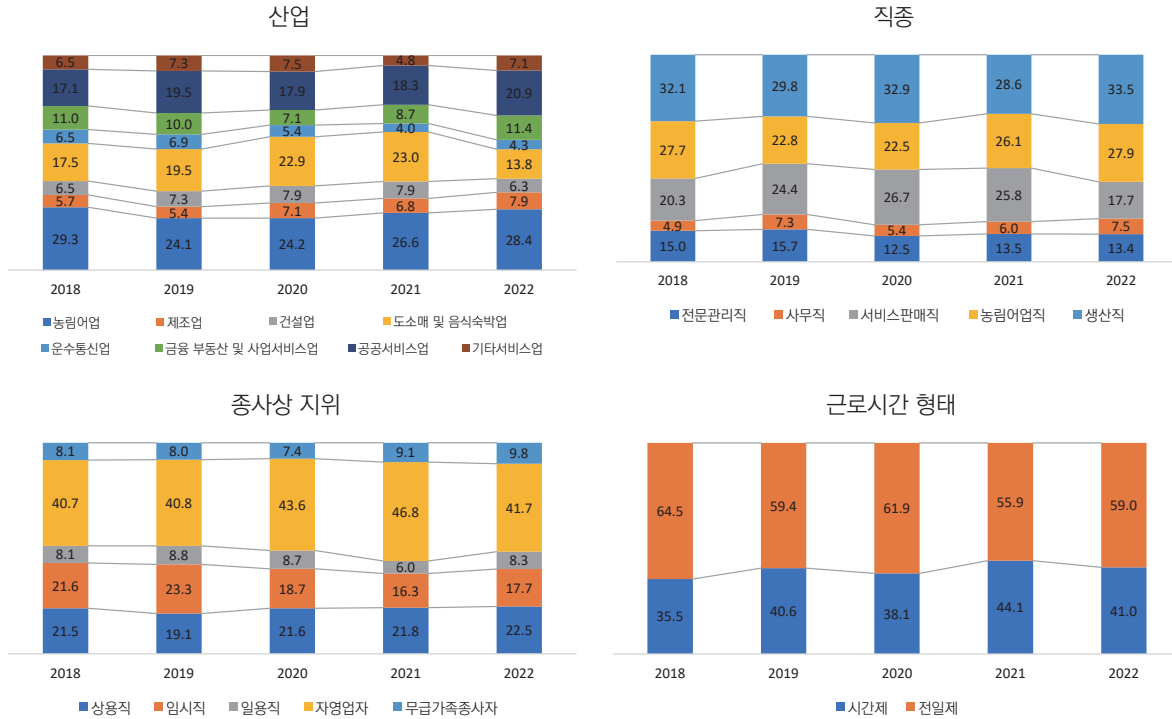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2]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 특성

(단위: %)



주: 1) 산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며, 제조업은 제조업 및 광공업 포함, 건설업은 건설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업 포함, 운수통신업은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포함,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함, 공공서비스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포함, 기타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포함.

2) 직종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3)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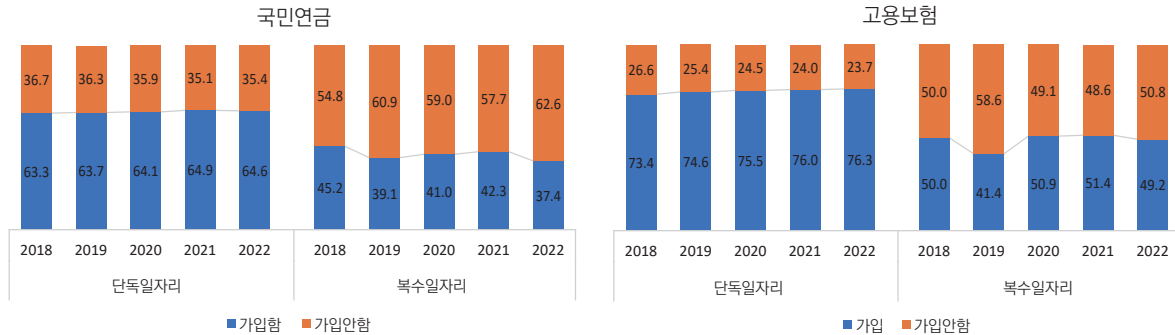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4. 복수일자리 종사자와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조건

- [그림 3]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봄.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64.6%)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음. 지난 5년간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은 8%p가량 감소(45.2% → 37.4%)한 반면,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49.2%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76.3%)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낮음. 지난 5년간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은 변화가 없는 반면,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은 점진적 증가(73.4% → 76.3%) 추세를 보임.
- [그림 4]를 통해 복수일자리 종사자와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복수일자리 종사자는 2022년 기준 2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67.7%로 가장 높은 반면, 단독일자리 종사자는 200만~5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복수일자리 종사자는 2022년 기준 15~36시간 미만의 비중이 42.1%로 가장 높은 반면, 단독일자리 종사자는 36시간 이상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시간

[그림 3] 복수일자리 종사자와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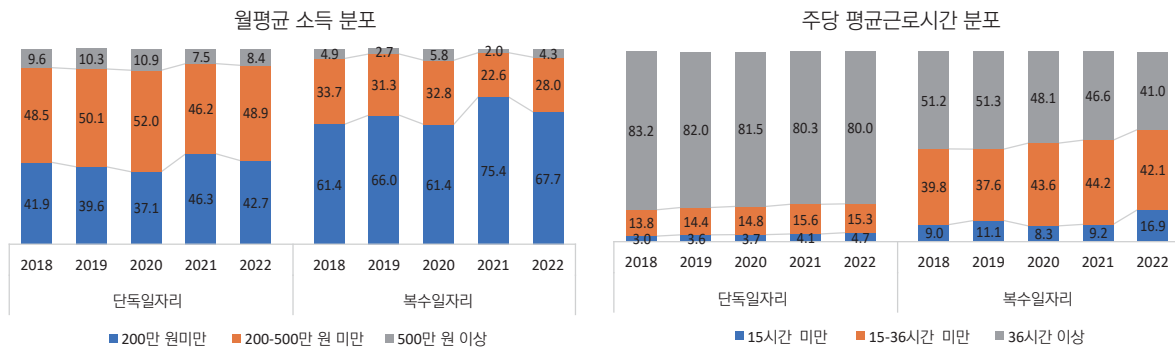
(단위: %)



주: 1)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함.
 2) 복수일자리 종사자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4] 복수일자리 종사자와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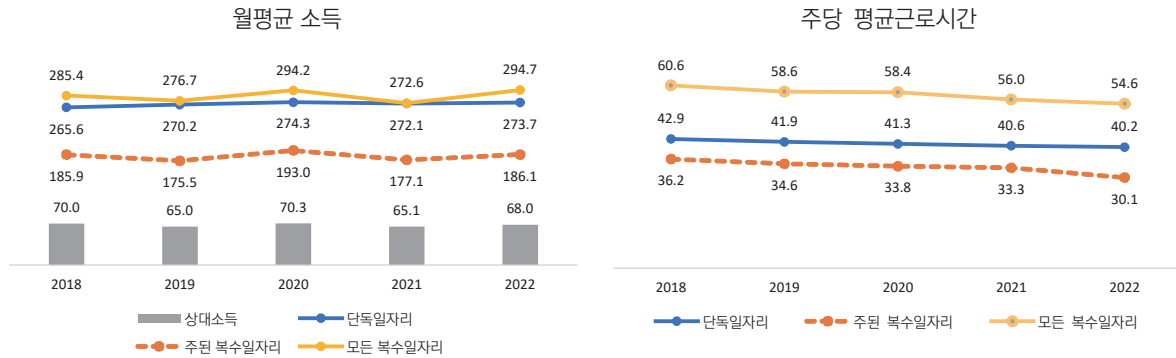
주: 1) 복수일자리 종사자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월평균 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계산함(2020=1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5년간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단시간 근로(48.8%→59.0%)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림 5]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단독일자리 종사자 소득의 약 70%에 불과하였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7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186만 1천 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273만 7천 원)의 68%에 불과함. 반면에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모든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 기준 294만 7천 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273만 7천 원)에 비하여 21만 원 정도 높았으나, 시간당 소득은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1만 3천 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1만 6천 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0.1시간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10시간 정도 짧음. 반면에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모든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을 합한 평균 총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54.6시간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40.2시간)에 비해 14시간이나 더 긴 양상을 보임. 이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5] 복수일자리와 단독일자리의 연도별 월평균 소득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만 원, 시간, %)



주: 1) 월평균 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계산함(2020=100).
 2) 상대소득은 단독일자리 종사자를 100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5.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두 번째 일자리 특징

• <표 2>를 통해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두 번째 일자리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 일자리에서의 소득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두 번째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과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만 원, 시간)

연도	두 번째 일자리(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득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2018	111.0	24.4	95.4	24.2	130.8	24.4
2019	112.3	24.0	101.2	23.8	126.2	24.8
2020	110.1	24.6	100.7	23.9	120.9	24.7
2021	99.2	22.7	89.3	21.5	108.8	23.6
2022	122.9	24.5	98.9	23.2	151.3	26.9

주: 1) 월평균 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계산함(2020=100).
 2)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표 3>의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두 일자리 모두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주된 일자리가 상용직이면서 두 번째 일자리는 자영업자인 비중이 34.3%, 임시직이면서 자영업자인 비중이 38.0%, 일용직이면서 자영업자인 비중이 56.0%를 차지함. 이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두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두 번째 일자리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 된 일 자 리	상용직	32.1	18.9	8.7	34.3	6.0	100.0(21.1)
	임시직	6.1	35.9	6.1	38.0	13.9	100.0(19.6)
	일용직	6.0	6.0	25.0	56.0	7.0	100.0(8.0)
	자영업자	6.5	18.7	12.3	59.7	2.8	100.0(42.8)
	무급가족종사자	3.7	18.7	8.4	20.6	48.6	100.0(8.5)
	전 체	11.5	21.1	11.0	46.5	9.9	100.0(100.0)

주 : 1) 2018~2022년에 포함된 모든 복수일자리 종사자 표본(pooled data)을 활용함.

2) 전체 표본은 1,253명이며 결측치는 제외함.

3)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의 산업이 다른 경우는 2022년 기준 64.6%대로, 두 일자리의 산업이 같은 경우(35.4%)보다 높게 나타남.¹⁾

- <표 4>에서 보면, 주된 일자리는 농림어업이면서 두 번째 일자리가 농림어업인 비중이 41.9%, 제조업이면서 농림어업인 비중이 34.2%, 건설업이면서 농림어업인 비중이 56.8%, 운수통신업이면서 농림어업인 비중이 35.3%,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면서 농림어업인 비중이 25.6%로 높게 나타남. 이는 시간적 제약이 없는 농림어업을 두 번째 일자리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의 직종이 다른 경우가 2022년 기준 60.6%로, 두 일자리의 직종이 같은 경우(39.4%)보다 높게 나타남.²⁾

- <표 5>에서 보면,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가 모두 전문관리직인 비중이 51.1%를 차지하였고, 모두 사무직인 비중은 32.1%, 모두 서비스판매직인 비중은 37.2%를 차지함. 반면에 주된 일자리가 농림어업직이면서 생산직인 비중은 42.0%이고, 생산직이면서 농림어업직인 비중은 50.2%로 높게 나타남. 이는 주된 일자리의 숙련 수준에 따라 같은 직종 또는 다른 직종을 두 번째 일자리로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 연도별 복수일자리의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의 산업

주된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2018	2019	2020	2021	2022
같은 산업		27.6	32.6	32.5	32.1	35.4
다른 산업		72.4	67.4	67.5	67.9	64.6

2) 연도별 복수일자리의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의 직종

주된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2018	2019	2020	2021	2022
같은 직종		30.1	38.5	37.1	38.9	39.4
다른 직종		69.9	61.5	62.9	61.1	60.6

〈표 4〉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두 번째 일자리의 산업 분포

(단위 : %)

		두 번째 일자리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전체
주된 일자리	농림어업	41.9	0.9	12.7	13.3	3.3	3.0	22.2	2.7	100.0(26.6)
	제조업	34.2	23.1	3.6	17.1	1.2	9.8	9.8	1.2	100.0(6.6)
	건설업	56.8	2.2	17.1	3.4	4.6	3.4	0.0	12.5	100.0(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2.2	5.0	0.4	36.0	4.1	8.3	8.7	5.3	100.0(19.3)
	운수통신업	35.3	1.4	4.4	11.7	17.7	7.4	16.2	5.9	100.0(5.4)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5.6	0.8	5.0	20.7	5.8	24.0	14.1	4.1	100.0(9.7)
	공공서비스업	31.5	5.1	0.4	14.0	1.7	3.4	37.0	6.8	100.0(18.8)
	기타서비스업	19.3	2.4	10.8	14.5	2.4	7.2	26.5	16.9	100.0(6.6)
	전체	35.1	4.2	6.4	18.1	4.1	7.1	19.2	5.8	100.0(100.0)

주 : 1) 2018~2022년에 포함된 모든 복수일자리 종사자 표본(pooled data)을 활용함.

2) 전체 표본은 1,251명이며 결측치는 제외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표 5〉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두 번째 일자리의 직종 분포

(단위 : %)

		두 번째 일자리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전체
주된 일자리	전문관리직	51.2	10.2	14.2	10.2	14.2	100.0(14.1)
	사무직	25.6	32.1	23.1	5.1	14.1	100.0(6.2)
	서비스판매직	7.9	6.6	37.2	28.5	19.8	100.0(23.0)
	농림어업직	2.8	4.4	13.5	37.3	42.0	100.0(25.4)
	생산직	2.5	2.0	14.5	50.2	30.8	100.0(31.3)
	전체	12.1	6.7	19.9	33.5	27.7	100.0(100.0)

주 : 1) 2018~2022년에 포함된 모든 복수일자리 종사자 표본(pooled data)을 활용함.

2) 전체 표본은 1,254명이며 결측치는 제외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1차~25차(2018~2022)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6. 요약 및 시사점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2018~2022년) 주된 일자리와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실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봄.
- 전체 취업자 중 2% 내외의 근로자가 복수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고연령, 고졸이거나 가구주인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은 농림어업, 직종은 생산직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및 전일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난 5년간 공공서비스업, 사무직, 무급가족종사자 및 시간제 비중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64.6%)의 거의 절반 수준이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49.2%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76.3%)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에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186만 1천 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273만 7천 원)의 68%에 불과하였으나, 모든 일자리에에서의 월평균 총소득은 294만 7천 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남.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에에서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30.1시간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40.2시간)에 비해 10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모든 일자리에에서의 근로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은 54.6시간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14시간이나 더 긴 양상을 보임.
 -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종사상 지위는 두 일자리 모두 자영업자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두 일자리의 산업이 다른 경우는 2022년 기준 64.6%이고, 직종이 다른 경우도 60.6%로 나타남. 두 번째 일자리는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과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 분석 결과를 통해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특성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